

전 남

2012 국제농업박람회 녹색 미래를 연다

3 농업예술관

오렌지빛 하와이 무궁화 만나볼까

농업예술관은 국제농업박람회 전시관 가운데 가장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다. 3676㎡ 공간에 아열대관·농업예술관·산업공충관 등 3개의 별도 전시관을 갖춰 규모면에서도 가장 크다.

아열대관은 지난해 처음 만든 유리온실로, 이곳에는 세계 각국 20여종의 열대 및 아열대 식물들이 마

리'가 탄소를 자아내게 한다. 모뉴트리(모노트리)는 한 나무에 여러가지 과일과 채소 열매가 열리는 상상의 나무를 연출한 것으로 뽕오이, 색동호박, 불수감, 부지화, 사과, 배, 파프리카가 한 나무에 열매를 맺고 있다. 자세히 보면 뽕오이와 색동호박 줄기에 나머지 과일들을 매달아 연출한 것이다.



산업공충관에 있는 컬러 누에고치. /최현배기자 choi

호박터널 지나면 16m 상상의 나무 '모뉴트리'

지구촌 60여종 고추·30여종 감귤도 한자리에

치 식물원을 연상시킨다. 아자나무, 관엽식물, 열대과수 및 허브식물, 식용작물원 등 8개 코너로 구성돼 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관람객이라면 주황색의 하와이 무궁화를 보고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

농업예술관은 입구에 설치된 호박터널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다. 안에 들어가면 16m의 대형 '모뉴트

리'가 탄소를 자아내게 한다. 모뉴트리(모노트리)는 한 나무에 여러가지 과일과 채소 열매가 열리는 상상의 나무를 연출한 것으로 뽕오이, 색동호박, 불수감, 부지화, 사과, 배, 파프리카가 한 나무에 열매를 맺고 있다. 자세히 보면 뽕오이와 색동호박 줄기에 나머지 과일들을 매달아 연출한 것이다.

10여종 1000여개의 과일로 만든 집과 사계절 딸기로 연출한 20m의 벽면도 볼거리다. 네덜란드·독일·중국·필리핀 등지에서 수집한 60여종의 세계 고추와 30여종의 지구촌 감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다.

습용, 사료용, 천적 등 곤충의 다양한 활용과 함께 감각류를 이용한 방수코팅제, 새우껍질로 만든 주름방지 섬유 등 곤충이 산업제품으로 재탄생한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다.

높이 3.5m, 길이 16m의 반원형 벽에 10만개의 누에고치를 붙여 만든 대형 누에가 있고 농촌진흥청이 형질전환을 통해 개발한 형광누에가 일반에 처음으로 이곳에서 공개

된다.

고목의 줄기 속에 동지를 틈 '목창'과 질벽의 돌틈에 집을 지은 '석창'은 꿀벌 집으로 자연상태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전시물이다. 나무와 돌의 한 면을 투명해 아크릴로 처리해 자연상태에서 꿀벌이 생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일본 나가사키로 거둔 도충 풍랑으로 제주도 표착해 조선에서 13년 7개월간 생활했던 네덜란드 선원 하멜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전시관이 4일 여수에 문을 열었다. <여수시청 제공>

여수에 하멜 13년 생활상 담은 전시관 개관

여수박람회 네덜란드관에서 기증한 하멜일기 등 전시

한국을 서양에 알린 최초의 책 '하멜표류기'의 저자 하멜. 그의 조선 체류 13년 생활상을 1666년 9월 동료들과 함께 탈출했던 장소인 여수에서도 엿볼 수 있게 됐다. 여수시는 4일 오후 중화동에서 하멜 전시관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하멜 전시관은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 연면적 662㎡ 지상 2층 규모로 특별전시실을 포함해 5개의 전시실을 갖췄다.

전시관에는 1653년 하멜이 조선 효종 때 들어와 조선에서 13년 동안 생활하다가 1666년 여수 중화동에서 탈

출할 때까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4개의 전시실이 마련돼 있으며, 여수세게박물관 네덜란드관에서 기증한 하멜표류기의 사본과 회화작품 등 총 11점의 기증품들은 특별전시실에 전시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하멜이 우리나라를 탈출한 장소인 중화동에 위치한 하멜전시관은 지난 2011년 현상설계 작업으로 기하학적 조형미와 조형적 아름다움까지 갖추고 있다"며 "중국의 예전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하멜 풍차와 함께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멜은 1653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 선원으로 일본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 풍랑을 만나 제주도에 표착(漂着)했으며 조선에서 13년 7개월 생활했다. 이 가운데 3년 6개월을 여수에서 생활하다 1666년 9월 4일에 동료 8명과 함께 전라좌수영을 탈출, 일본을 거쳐 1668년 본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 13년간의 한국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멜 표류기를 저술했다.

그가 남긴 하멜 표류기는 조선의 존재를 유럽인들에게 알렸을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의 사회실정과 풍속, 생활 등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숨쉬는 옹기 만들어요" 보성군 독향 지역아동센터(센터장 유경숙) 아동들이 보성군 여성자원봉사협의회(회장 김윤남) 회원들과 함께 최근 미력용기에서 옹기를 만들고 있다. 아동들은 전통 방식인 '헛바퀴 타래 기법'(흙덩이를 판자처럼 길게 늘어뜨려 그릇의 틀을 만드는 방법)으로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었다.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고흥 미역·다시마 지리적 표시제 등록

고흥 미역과 다시마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다.

고흥군은 "최근 고흥 미역과 다시마가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의 등록을 완료하고 지리적 표시제 제14호, 제15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고흥 미역·다시마는 관세 289 여가

가 3200ha의 어장에서 연간 12만톤을 생산해 열장미역·다시마·마린미역·미역줄기 등을 포함해 92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효자 품종이다. 고흥미역은 전국 생산량 40%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과 품질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jju@

서남권 여객선 명절 이용객 25% 증가

올해 추석연휴 동안 서남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12만7000여명에서 3만2000여명 증가한 16만명으로 25% 증가했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은 추석연휴 특별수송기간이 지난해 5일에 비해 올해는 6일간으로 늘었고 기상조건이 좋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용객이 많이 증가한 항로는 신안 진리~점암, 진도 울목~평목, 목포~가산, 청산~완도 등이다. 특히 목포~가산항로의 경우 최근 건조된 대형 여

객선이 투입돼 운량실휴가 늘고 이용 편의도 향상돼 인근 대체 항로보다 많은 이용객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완도 항로는 청산도가 최근 관광명소로 유명해지면서 청산도 인근의 많은 귀성객들이 방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목포~울목, 울곡~웅곡, 목포~우이 항로는 귀성길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여객선이 일부 섬 지역 입항을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상의, 서남권 경제위기 극복 워크숍

목포 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가 최근 진도 국립 남도국악원에서 서남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서남권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목포상의 의원 부부와 사무국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진 진도군수 축사와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의 특강에 이어 자유토론 시간으로 상의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호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 현지 경영여건의 악화로 국내로 U턴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며 "전남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목포상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포가 황해권 중심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수많은 대안제시와 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황해권 발전연구원'을 설립·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서남권 1시·9개 군 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해결에 함께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목포 시민의 날 행사 오늘 시민문화체육센터

제50회 목포 시민의 날 행사가 '개항 115주년, 새로운 도약과 비상!'이라는 주제로 5일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유달산 새천년 시민의 종가에서 50회 타종을 시작으로 10시부터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기념식이 치러진다. 가수 최유나·국악인 오정혜 등이 축하공연을 펼친다.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체육센터 대공연장 로비에서 강강술래를 시연하고 동 대학 게이트볼 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SCREEN GOLF

두암골프존

두암골프존 파격할인

REAL 18홀 14,000원 (연중동일)
오전(평일) 12,000원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 적용합니다.

골프존 기본형 18홀 12,000원 (연중동일요금)
오전(평일) 10,000원 (12시 티업까지)

- 편안하고 쾌적한 최고시설 5개동
- 전타석 스윙플레이트
- 원순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 단체경기(8~10인)를 위한 OPEN형 룸
- 골프채, 신발, 장 무료대여
-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 일제외)
-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 매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필드의 느낌을 그대로..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골프연습장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환도로쪽 70m [옛날 5층]

예약 ☎ 234-9999

태양열 온수기 보급사업 접수안내

2012년도 자연순환식 태양열 온수기 보급사업 접수안내

설치비용 **500만원**(자부담 230만원) 무상S/S 5년

무상보조 **220만원**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 에너지 센터 제2012-20호)

시공사보조 **50만원** / 자부담 **230만원**

2012년 10월 16일까지 예산범위내에서 선착순 접수분에 한함!

온수축열 이중뱅크
이중뱅크 내부를 고품질 발판(에나멜)코팅 처리 하여 장기간 사용에도 부식이 발생되지 않고 이중뱅크 구조로 제작되어 있으며, 고밀도 발포 우레탄을 사용하여 우수한 보온력으로 고온의 온수를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뱅크내부에 스케일(침전물) 발생 방지를 위한 장치 가 되어 있어 반영구적인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태양열 집열부
Selective-Titanium Coated된 동판과 초유파 용접, 레이저 용접된 흡열판, 성형 Body Case 및 입체형 보온재(50mm) 적용 등 최첨단 기술이 집적된 반영구적인 집열기

조립이 용이한 설치대
태양열 온수기 설치대는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부품용 최소화하였으며, 짧은 시간 내 설치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재질의 설치대를 공급함으로써, 설치환경에 적합한 재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알루미늄, 아연도금 철 재질)

간편한 설치 및 시공
모든 부품의 규격단위 부품화(Modularization)를 통해 간편하게 설치, 시공 할 수 있습니다.

CAS 청암솔라 상담 및 접수 **062-528-3070/019-624-2371/019-655-5678**